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 받아야! **윤석열과 김건희는 소환조사에 응하라!**

- 심우정, 명태군 게이트 본격수사시 김주현 전 수석과 비화폰 통화
- 김건희, 황제출장조사 전 김주현 전 수석과 비화폰 통화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명태군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할 당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두 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4년 10월 10일과 11일, 총 24분간 통화입니다.

김건희도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관련 서울중앙지검과 조사방식을 조율하던 때에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두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부적절한 비화폰 통화!

창원지검은 지난해 9월 30일 명태군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명태군 게이트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고, 명태군씨는 10월 7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날 잡으면 한달 만에 대통령이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 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10월 8일 윤석열이 명씨는 2번 자택에서 만났고 “경선 막바지쯤 명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첫 공식해명을 했습니다. 」 ①

하지만, 이는 곧 명태균씨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명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통화와 문자 연락을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계속해왔다고 했고,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안 나온 것이다. 그러다가 입 열면 진짜 뒤집힌다“라고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처럼 일파만파 명태균 게이트가 커지자 국회 법사위는 지난해 10월 11일,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혜경씨를 대검찰청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점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음모가 있었는지 국민 모두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통화 이후 중앙지검 국정감사를 앞둔 10월 17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심우정 총장과 김주현 민정수석의 통화가 이뤄진 다음이니, 여기에 대통령실의 압력이 들어갔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범죄입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받아야

그동안 심우정 총장은 김건희 디올백 수수와 주가조작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를 했고,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석열을 풀어줘 내란에 동조했습니다. 이 모든 비정상적 결정의 배경에 김주현 전 민정수석,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합니다. 」 ②

또한, 심우정 총장은 김성훈 전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3차례나 반려하면서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 번호를 물어보고 이를

이진동 차장 등에게 넘겨 김용현 전 장관이 자진출두하도록 하는 등 검찰 수뇌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와 비밀리에 내통했다는 부적절한 행태란 점에서 시민단체에 의해 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언제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는지도 의아합니다.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은 것 역시 검찰이 윤석열의 친위대였음을 방증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검찰이 김성훈 전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건 심우정 검찰총장의 비화폰 사용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도 드러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가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것도 이례적인데, 김건희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내역이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검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민정수석이 조사 대상인 김건희와 직접 통화했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7월 3일 김건희와 김주현 전 수석의 비화폰 통화가 이뤄진 뒤 7월 20일에 황제출장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김건희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것은 아닌지 특검 수사로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③

윤석열과 김건희는 소환조사에 응하라!

윤석열은 3차례의 경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조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문제인데, 뻔뻔스럽게 경찰청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는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어제 갑자기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곧 출범할 상황에서 김건희가 전격적으로 입원한 것은 수사 지연의 목적, 수사를 피하려는 꼼수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심우정 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특검은 수사해야 합니다.

비화폰을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심우정 총장과 김주현 전 수석의 통화 내역을 전부 공개하고,
윤석열의 위헌·불법한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윤석열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통화했다면 검찰의 내란가담과 관련해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등등 낱낱이 수사로 밝혀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을 신속히 수사하고,
특검 역시 심우정 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내란 가담과 수사은폐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착수와 함께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는 소환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3차례나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내란 수괴와 국정농단을 저지른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조사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④

2025. 6. 17.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

- 단장: 서영교
- 부단장: 김병기, 한병도
- 위원: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균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이성윤, 이연희, 허성무